[홈][지식사회포럼 개요] [지식사회포럼가족] [지식사회연수프로그램] [지식사회특강] [지식사회총서]

여기서부터 ………………………………. 사진을 넣을 것 ……………………………………………………………………………… 여기까지

\*로그인 섹션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

지식사회총서1

21세기를 사는 아홉 가지 지혜

- 지식사회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박 재 윤 지음

(2014년 6월 출간 예정)

한국경제신문

머 리 말

태고 이래 인류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그런데,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살기가 좋아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리어 더 힘들어지기도 한다. 세상이 발전하면 전에 없던 좋은 물건들이 등장해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전에 알지 못했던 좋은 곳에도 가볼 수 있어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골고루 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맞추어 자신의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속도를 적절히 따라 가지 못하는 사람은 수혜에 있어서 뒤져 오히려 불행해진다.

인류사회는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다. 지식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지구상의 모든 정보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분명 이전의 산업사회보다 더 더 살기 좋은 세상의 모습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지식사회의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전체 인류의 2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류의 상위 20퍼센트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인류사회가 오늘날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사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인류사회가 지식사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전 사회와는 확연히 다른 지식사회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짚어 보는 데서 출발한다.

이 책의 궁극적인 주제는 새로운 인류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혜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 지혜를 제시했다.

첫째, 일생의 비전을 세우고 가다듬어 가는 지혜와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정보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지혜에 대해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들 지혜들을 갖추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한 세가지 지혜이다. 창의력은 지식사회에서의 경쟁력의 핵심이다. 창의력을 만들어 내는 데에 필요한 세가지 지혜에 대해 그것을 효과적으로 갖추고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셋째는 협력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세 가지 지혜이다. 협력은 아름다운 인간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느 인류사회에서나 필요한 것이지만, 지식사회에서는 필요한 정보력과 창의력을 개인의 힘만으로는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의 아홉 가지 지혜는 지식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었으므로 크고 작은 현실의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데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 믿는다. 뿐만 아니라 이들 아홉 가지 지혜들은 실천적이기도 하다. 지혜라고 해서 단순히 머릿속에 갖춰두는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의지와 사고만으로는 현실 세계에서 성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요령까지 제시했다.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이 책은 기존의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차별화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32년간의 회임기간과 6년간의 산고를 겪은 끝에 탄생했다. 21년간의 대학 교수 생활과 5년간의 고위정책인 생활 그리고 6년간의 대학경영인 생활을 하면서,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미래 인류사회에서 승리자가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있을까 하는 문제를 늘 고심해 왔다. 이후 6년간 미국 두 대학교에서 교환교수 생활을 하면서 그간의 고심과 나름대로의 해답을 정성 들여 정리한 것이 이 책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책을 통해 앞으로 어떤 사회가 전개될지를 이해하고 아홉 가지 지혜를 모두 갖춘다면, 그리고 성장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자식들이 그리 되도록 도움을 준다면 우리 젊은 세대는 장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야 우리 사회 역시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선진사회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아내 김화자는 내가 집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고 원고를 열심히 읽어주었다. 네 살 때 “할아버지, 무엇을 연구하세요?”라고 물어보던 외손자 양승재는 열 살이 된 지금까지 외할아버지의 연구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주었다. 사위 양홍석, 딸 박수현, 아들 박수혁 그리고 며느리 최고운도 끊임없는 관심 속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었다.

이 책의 산고를 순탄하게 치르도록 좋은 산실을 만들어준 미국 일리노이기술대학원I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의 류 콜린즈Lew Collens 전 총장과 미국 유타대학교The University of Utah의 돈 와델Don Wardell 학과장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미국 솔트레이크카운티Salt Lake County의 휘트모어도서관Whitmore Library에도 많은 신세를 졌다.

초고를 읽고 탁월한 의견을 주신 송경복 동문, 박재성 교수, 정영인 교수, 안진원 교수, 전택수 교수, 박영애 선생, 변영애 선생, 이상헌 씨 그리고 박수형 씨에게도 감사드린다. 한경BP의 김경태 전 사장과 고광철 사장 그리고 전준석 주간을 비롯해 졸고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21세기를 살아 가는 데 필요한 탁월한 지혜들을 깊게 심어 주어서 그들 모두가 지식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

2014년 봄의 초입에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박 재 윤

차 례

프로로그: 21세기는 지식사회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숙고

지혜1: 비전을 세우라.

지혜2: 바이링구얼이 되라.

지혜3: 컴퓨터를 사랑하라. //경청

지혜4: 시계열로 보라.

지혜5: 횡단면으로 보라.

지혜6: 역발상을 도모하라. //최선

지혜7: 시너지를 추구하라.

지혜8: 코칭파트너가 되라.

지혜9: 승승사고를 가지라. //인내

에필로그: 9가지 지혜와 우리의 삶 //감사

미주

이 게시물을

[홈][지식사회포럼 개요] [지식사회포럼가족] [지식사회연수프로그램] [지식사회특강] [지식사회총서]